

## 산 자 부 , One-Stop 국 제 기 술 협 력 서 비 스 본 격 제 공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9월 6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5개 권역별 해외거점사업 운영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기술협력거점 워크숍'을 개최하고 권역별 국제기술협력 거점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가진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해외 기술동향 파악, 공동연구 개발 파트너 발굴, 해외 우수 기술인력 유치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자부는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주, 아세안, 중국), 동서대학교(EU), 한국산업기술대학교(유라시아)를 5개 권역별 기술협력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해외거점과 해외거점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의 국제기술협력센터 간 업무협력 시스템 및 국제기술협력 포털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구축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현지거점 운영기관은 해외기술투자유치, 외국 산학연과의 기술교류협력 지원, 우수기술인력 유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제기술협력센터가 운영하는 K-GIN on-line 을 통해 국내의 국제기술협력 수요자들에게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된다.

## 정 통 부 , SW 진 흥 법 소 폭 개 정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과업내용변경 대가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소폭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말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과업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SW 관련 프로젝트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이견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SW프로젝트의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두고 빚어져 온 발주자와 수주자 간 마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과업내용변경 대가 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와 시행규칙에 규정,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안서보 상기준마련과 정보통신공사업, SW사업자 간 사업 중복문제는 제외됐다.

## 중 기 청 , 2005 년 도 중 소 기 업 인 력 실 태 조 사 착 수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만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성장단계별 기업의 인력실태, 교육훈련 현황, 정부의 인력정책 활용실태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수요 등에 관한 '2005년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중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군·구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분석 등은 용역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현황 및 부족인력, 교육·훈련, 외국인근로자 관련사항 및 장기재직자 현황 및 지원수요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산업인력양성, 취업 연계 등 중소기업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규모별 인력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맞춤형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대책 등 각종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의 인력현황 및 향후 인력수요 전망, 채용유형변화, 교육훈련 실태 및 외국인력 활용실태 등 다양한 주제와 비정규직 등 인력정책에서 소외된 분야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중기청은 이 조사가 마무리 되는 올해 말 조사결과를 정부 각 부처의 산업인력양성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또는 인력양성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인력종합대책 등에 반영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 기 청 , 중 소 · 벤 처 기 업 추 석 자 금 지 원 독 려**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5조 6천억원의 특별자금을 방출하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9월 중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9월 8일 은행회관 Banker's Club에서 금년도 제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을 진단하고 은행권의 중소·벤처기업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청장을 비롯해 김종열 하나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주요기관 대표와 한정화 중소기업학회 회장 및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추석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 5조 6천억원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이 추석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독려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신규대출을 확대하고 추가담보 요구,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주된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상당 코너를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31일 정부가 확정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후속조치로 9월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용하게 되며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보증의 실효성이 높았던 점을 감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인 보증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 6월 23일 정부가 확정된 '신용보증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계가 보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년도 보증공급 계획인 41조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일선 장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보증기관 이사장에게 당부하였다.

**중 기 청 한 · 중 벤 처 캐 피 털 포 럼 개 최**

중소기업청은 국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외자유치 지원과 한·중·대만 벤처캐피털업계의 상호협력을 위해 9월 6일 중국 상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중 벤처캐피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IR중심으로 추진되던 기존 행사와는 달리, 기업 IR과 함께 한국, 중국, 대만 벤처캐피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김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1조원 모태펀드 조성 등 최근의 벤처생태계 조성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모태펀드 운용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국내외 공동 투자펀드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특 허 청 , 금 용 부 문 특 허 설 명 회 열 려**

특허청(청장 김중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9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기관의 특허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금융부문 BM특허 출원 및 등록동향, 분쟁사례와 대응능력 향상 등이 소개됐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벤처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그동안 특허업무 경험과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화 및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부문 BM특허 출원 건수도 지난 2000년 742건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3% 줄어든 292건에 그쳤다. 다만 기술적으로 구현된 금융관련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허 등록건수는 98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내실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부문을 포함한 BM특허 분야의 특허결정률은 여전히 다른 기술 분야의 특허결정률(2004년 60.1%)을 크게 밑돌고 있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신용보증 및 세제개편 관련 공동건의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용구)는 9월 8일 정부의 '신용보증 및 세제 개편' 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관련단체로 구성된 단체협의회는 "개편된 신용보증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신용보증료 인상, 부분보증 축소 등으로 전체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 등 2005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 원활화를 위한 내년도 정부출연금 확대, 수도권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지, 과세표준 1억 이하 업체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벤처기업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소비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 경남도, 일본 동경·요코하마에서 바이오·첨단 산업 유치 활동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동경과 요코하마지역에서 바이오 및 첨단산업유치활동을 벌였다. 이는 도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부지, 마산진북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조속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유치활동 기간 중에는 경남투자환경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해 개별기업 방문상담과 'Bio Japan 2005 World Business Forum'에 참석한 바이오 관련업체 및 비임상시험기관(CRO)을 대상으로 한 유치상담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설명회에서는 경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과 지원인센티브 및 진사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칠서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남양지구,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부지, 마산시 진북산업단지 등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소개했다. 경남도의 투자유치자문관인 딜로이트 투쉬 마쯔사(Deloitte Touche Tohmatsu) 이세훈 이사의 '한국 경제의 매력과 투자메리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열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과의 개별투자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진주 문산에 바이오 벤처플라자를 설립하고 4만 5000명의 전용산업단지(Bio-Valley)를 조성 중이다. 성장벤처지원동과 국제공인 비임상시험 대행기관을 건립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이곳을 서부경남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국내외의 최첨단 바이오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대 덕 특 구 이 사 장 에 박 인 철 씨 임 명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에 박인철(54) 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임명됐다. 초대 특구 이사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시리큐스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1974년 제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대통령 비서실, 한국교육개발원, 국방대학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01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으며 예산관리국장, 재정기획국장, 재정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월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1급)으로 재직하는 등 정책 분야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며, 특구 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여성벤처협회 '2005 한·중 기술상담회' 참가 업체 모집

한국여성벤처협회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중국 산둥성 태안시에서 열리는 '2005 한·중 기술상담회'에 참가할 업체를 신청받는다.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둥성인민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여성벤처협회가 후원하고,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마감은 9월 20일까지이다.

- **행사일정** : 2005년 10월 11일(화)~14일(금) 3박 4일
- **행사장소** : 중국 산둥성 태안시(제남시에서 40분 거리)
- **행사주최** : 인천광역시, 중국 산둥성인민정부
- **행사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송도테크노파크, 산둥성 과학기술협회
- **행사후원** :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참가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화학·화공, 건축자재, 축산, 바이오, 생명공학 등 기타 분야(서비스업 제외)
- **참가규모**
  - 한국 : 중국 진출 및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약 100개
  - 중국 : 한국 진출 및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약 400개
  - \* 참가기업 1개당 중국기업 4개 이상 상담 알선
- **참여 기업 지원 내역**
  - 참가비 무료(참여기업은 양복 항공비만 부담)
  - 업체당 1명에게 3박 숙박비 제공(숙박 및 식사)
  - 기술상담회 장소 및 통역 무료지원
  - 산업시찰 무료제공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오상민 주임  
전화 : 02-6009-8500, 팩스 : 02-6009-8502

# VD Scrap



▲ 2005년 9월 7일 중앙일보 E4면  
협회는 10월 14일 '벤처주간' 개최식에서 벤처 백만대군 발대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벤처기업인들이 벤처 백만대군"으로 뭉쳐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조현정 회장의 포부를 보도한 기사.



▲ 2005년 9월 5일 전자신문 17면  
내년 초부터 민간 벤처 금융기관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벤처 확인제'가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중기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